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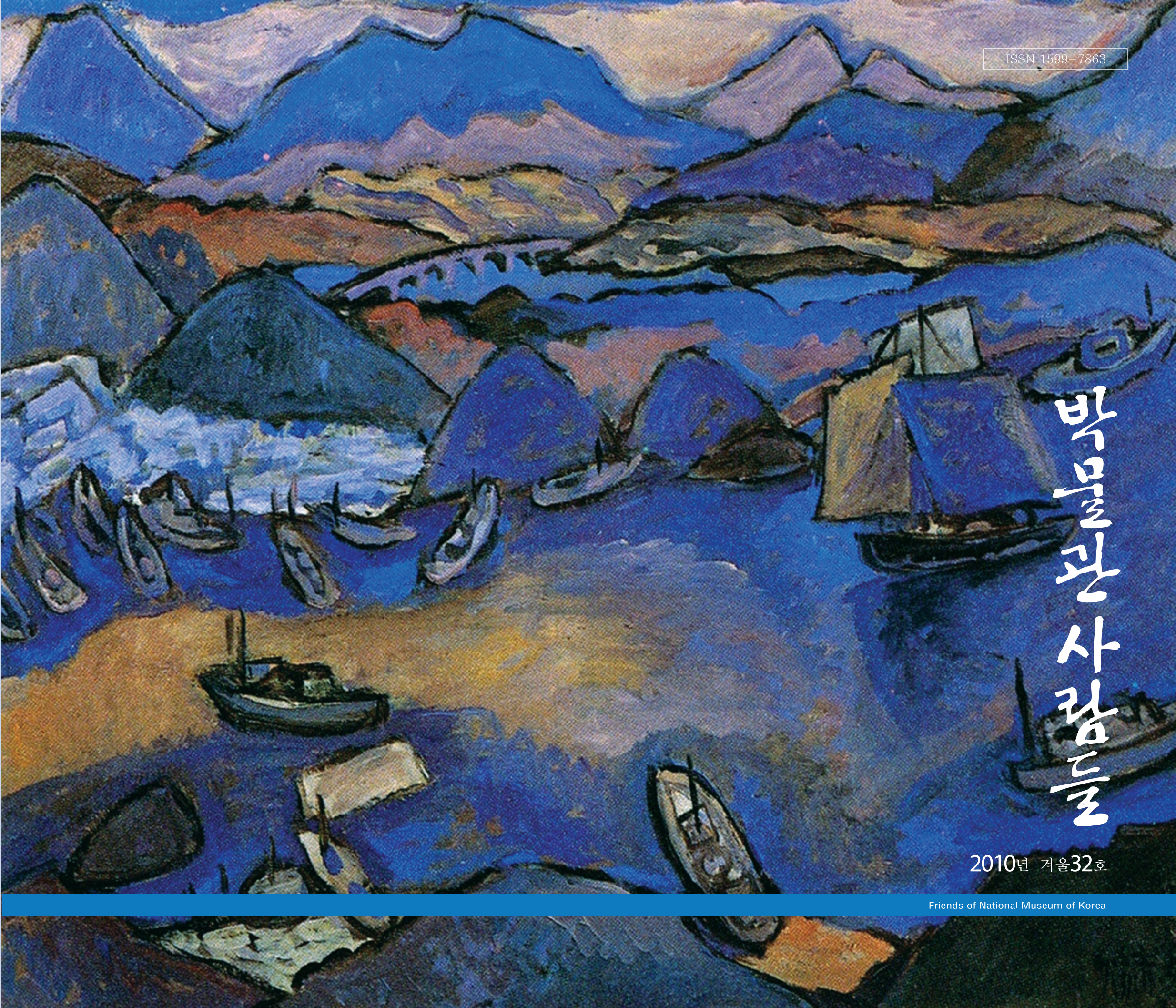
박물관 사람들

2010년 겨울 3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전학림 作, 「한려수도」, 1983년, 79×63cm, 오일 캔버스

Contents

기획_통영	04	통영
	09	예술가마을 갈 통영
	14	쫓빛 한 술에 청색 잉크 한 방울
선비들의 문화사랑	17	隱者가 사는 곳_ 趙賞齋 謝人帖
문화칼럼	20	남근형 木簡으로 본 백제의 길제사
회원마당	24	셀러드블 '사발'에 따라서
	27	황남대총전을 보고
학술상	30	《등준시무과도상천》의 공신도상석 성격
박물관 둘러보기	34	후원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統

營傳

戊子年

통영



01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굵이쳐 흐르던 물길이 바뀌고, 沿岸의 문화유적들이 파헤쳐진다. ‘디자인 서울’ 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비한 광화문은 연일 수난이다. 지난 여름에는 물난리를, 가을에는 금이 간 현판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 해치[해태]의 현대화된 모습에는 적잖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새삼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현대와 전통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전통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다. 매일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이 출시되어 옛 것은 시대에 뒤쳐진다는 생각이 든다. 전통이란 박물관에 잘 모셔 놓은 유물을 볼 때만 느끼는 것일까. 그 해답을 전통 공예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은 남쪽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찾아본다.

통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기도 하고, 바다가 도시를 감싸 안고도 있다. 통영의 앞 바다에 접점이 뿌려진 250여개의 섬들은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굵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넓은 백사장도 없고 절벽 아래가 바로 바다이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한산도와 어수의 물길이 이어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바다에 떠 있는 무수한 작은 섬들은 사나운 파도를 잠재우며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한다. 수산자원의 寶庫, 온난한 기후, 어디를 보아도 수려한 자연환경은 통영인들의 뒤편에 자연스럽게 예술혼을 심어 놓았다.

충무공 이순신은 다도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쟁이 끝나자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지금의 통영 땅인 두봉포로 옮겨졌다. 통제영을 줄여 통영이라는 도시가 탄생한 순간[1604년]이다. 행정구역이 넓어지며 충무시로 승격 되었으나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쳐져 다시 제 이름 통영시를 되찾게 되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어항산 기슭의 아늑한 풍광에 둘러싸인 洗兵館[국보305호]은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건물이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규모로, 벽체나 창호도 없이 공간으로 트여 있어 큼직하고 시원하다. 높은 천정에는 나무 칸칸이 배

곡하게 단청이 시분 되어 있다. 바위 옆에 피어난 꽃들은 한 쪽의 수북화이고, 옆으로 날며 유약을 연주하는 樂童의 빨간 입술이 양증맸다. 바람 부는데로 나무끼는 이파리,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단청 등,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빛바랜 단청이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 더욱 정감이 간다. 경복궁의 경희루, 어수의 진남관과 더불어 바닥 면적이 가장 넓은 복조 건축물이다. 세명관이란 명칭은 ‘어떻게 하면 은하수를 끌어다 명장기를 씻어 다시는 전쟁에 쓰이지 않도록 할까’ 라는 두보의 시 「洗兵」에서 인용하였다. 입구의 현판 역시 ‘무기를 거둔다[止戈]」는 뜻으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세명관 옆으로 동헌과 12공방이 복원중이다. 통제영이 고종 32년[1895년] 폐명 되기까지 300여 년간 존속하자 통영의 경제는 활기를 띠었다. 각종 군수품을 외판 변방으로 조달해야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전국의 장인들을 불러 들여 공방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12공방의 시작이다. 12공방이라 하여 12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옷칠·장석·그림·가죽·철분·복기구와 생활용품·갓·자개 등의 공예가 마치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때처럼 작은 어른에서 꽃을 피운다. 통영의 공예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교동이 불편하였음에도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영롱한 나전을, 선비들은 갓을 선호하여 돈을 아끼지 않았다. 또 받은 어떠한가. 일반 대나무발보다 훨씬 섬세하고 기능적 데오리를 뽑아 정교한 무늬로 엮어가는 통영받은 현대의 공간과도 잘 어울린다. 전성기의 통영에서는 양반, 상민 모두 우리의 공예를 아끼며 전통을 이어갔다.

늘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통영에서는 정월대보름 놀이인 연날리기를 자랑스러운 분

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연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비담과 영종은 반란을 일으킨다. 기유신 장군이 연을 이용하여 반란을 수습하고 진압했다는 것이 「三國史記 列傳」에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다.

통영연의 유래는 군사도시로 발전한 17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통영연은 우리나라 고유의 방패연이기는 하나 다른 지역과 달리 그 크기가 엄청나고 색채와 분양이 단순하다. 강한 바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는 信號爲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연을 이용해 전술을 지시했다고 한다. 연의 오방색「黑-북, 白-서, 青-동, 赤-남, 黃-중



02



03

양은 방향을 가리킨다. 청색 바탕의 연을 띄우면 동쪽 방향으로 공격하며 청색과 적색의 연은 동, 남 동시 공격을 의미한다. 또한 분양으로 지명과 전략의 형태를 지시했다. 삼봉산 분양이 있는 연[삼봉산연]을 날리면 모든 군사들이 삼봉산에 집결하고, 기바리눈쟁이연이 올라가면 백병전으로 싸우라는 뜻이다. 이런 전령이 숨어 있어야 하기에 커다란 사각의 연은 강렬한 오방색이며 좌우대칭의 단순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의 검은 분양 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빗살무늬처럼 수천 번을 그리는 것으로 빗살무늬치기 기법이라 한다. 이 기법은 통영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연을 가볍게 해 줄 뿐 아니라 그 모습 또한 멋스럽다. 좌우 완벽한 대칭이지만 자세히 보면 면을 양분 하지 않고 약간



04



05



06

- 01 _ 1980年代 통영의 모습, 통영항토역사관 소장
- 02 _ 세병관 현판
- 03 _ 세병관

- 04 _ 긴고리눈쟁이연, 김휘범작
- 태풍이 일면 배와 배를 짧게 묶어라
- 05 _ 들쭉바지기눈쟁이연, 김휘범작
- 병참과 병기보급의 의미
- 06 _ 기바리눈쟁이연, 김휘범작
- 맞붙어 싸워라
- 07 _ 빗살무늬치기 기법

위로 올려 그렸다. 시각적으로 부딪고 연의 무게도 줄이는 인척이조의 치밀함이 보인다. 강렬한 붉은 분양은 단청 문감을 사용해야 색이 바래지 않고 선명하다.

50년간 통영연을 이어온 김휘범 [국가지정 기능전수재] 선생은 구전으로만 내려온 분양의 정확한 작도법을 연구해 계승하고 있다. 뼈대라 할 수 있는 고삼대는 현집의 벽 속에 들어있던 80~90년 된 대나무를 사용해야 연이 휘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한 일은 지금 우리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잘 보존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 있다. 무관심 속에 자꾸 사라져 가는 우리의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

프다고 老人은 아쉬워한다.

사실 전통을 이어 간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어릴 때 어머니는 모아둔 짚뽕으로 큰맘 먹고 자개장 두 짝을 장만하였다. 자개보다 까만 옷철이 대부분인,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던 그 장을 바른 형겅으로 매일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한 발짝 물레나 눈을 지그시 가고 가만하듯 바라보았다. 가족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지구까지 망 한 면을 채우고 있는 자개장에 대한 어머니의 예찬은 끝이 없다. 나이가 들자 내 눈에도 그 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어머니가 사랑하던 장을 내가 아끼고, 또 내 자식이 보듬고……. 사랑하고 아끼면 전통은 저절로 이어져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닭을수북 빛나는 나전을 갖고 싶은 품북 1위로 정하고, 가볍고 예쁜 통영 누비가방은 필수품이며, 취미로 오방색 연을 날리는 생활. 어쩐지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것만 같다. **편집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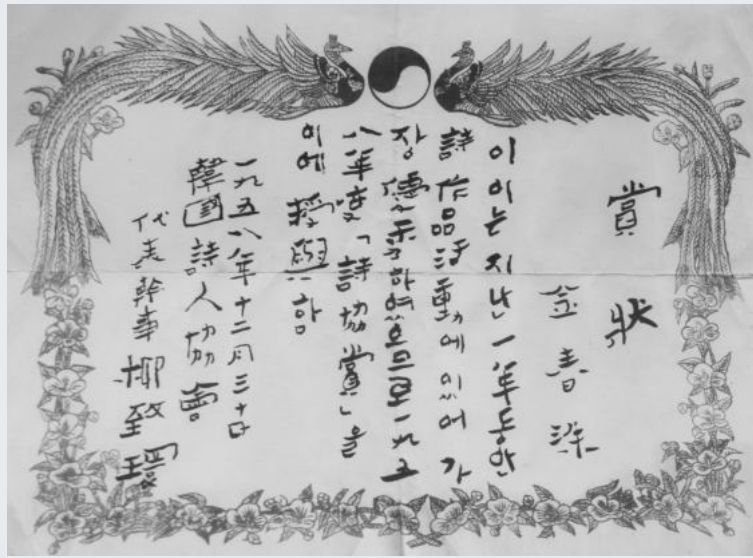
예술가 마음 받 통영

통영은 남해안의 작은 도시이다. 면적으로만 보면 조촐하다. 도시 앞에 널린 무수한 섬들과 바다의 깊이를 생각하면 좁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이순신이 한산대첩에 성공하면서 작은 어촌이 처우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했다. 임정부더 칸을 앞세웠다. 그리고 300년간 수군총사령부의 입지적 역할을 다한다. 꾀는 文과 달다서 맨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12공방의 설치는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었다. 칸을 잘 다루는 장인들이 모여서니 손끝이 어뭉어 질 수밖에. 조선말엽부터 통영은 技藝의 고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극작가 농랑 유치진, 시인 청마 유치환, 시조시인 초정 김상옥, 시인 김춘수, 소설가 박경리, 모두 동영이 배출한 분이다. 사실 분단에 이류를 올린 동영 출신의 분인들은 훨씬 많다. 분외한이라도 한번쯤 이름을 들어본 분인만 주려도 그렇다는 것이다. 깊이로 따져본다면 當仁이 부채할 정도이다. 소설가 박경리를 가히 누구와 견줄 수 있을까. 모두 한국 현대 문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20세기의 동영은 문학의 고향이다.

武의 고장인 동영에서 진출한 분인이 많이 배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풍광이 문학을 잉태한다면 한려수도 어디든 배어나다. 풍부한 수산자원이라고도 한다. 청정해역 남해안의 수산물도 확실히 비각을 자극한다. 수군봉

제영이 설치되면서 전국의 명사와 문류가 모였으니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다. 경제적 여유도 배놓을 수 없다. 신학문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들은 문학에 눈을 떴을 것이다. 동영만의 특수성은 12공방의 후예라는 점이다. 무기 생산의 첫째 요건은 치밀함과 실용성이었다. 섬세한 손끝이 탄생시킨 공예품을 보고 쓰며 자란 동영 사람들의 안목은 얼마나 높았을까. 오랜 세월 동안 체화된 감각이 예술적 언어를 뿜어냈을 것이다.



김춘수 유품전시관 소장

농랑과 청마 형제는 동영이 문화 예술의 고장이 되게 초석을 놓은 셈이다. 선진 문물을 먼저 경험한 이들은 동영 문화협회를 조직하였다.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김상옥, 김춘수, 재미 소설가 김용익, 칠예가 김봉룡 등 많은 동영의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예술혼을 내양했다. 활농기간은 짧았지만 요주 보기 드문 종합예술단체라는 생각이 든다. 청마는 김춘수의 첫 시집에 '그가 그의 앞길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대성할 것과 詩壇의 유니크한 한 자리를 차지 할 것을 우리는 믿어 좋으리다' 라는 서문을 써준다. 김춘수는 청마의 격려에 많은 힘을 얻었다고 술회한다. 생명에 대한 예찬과 허무의식을 오르내리며 서정성 짙은 시로 청마 자신도 시단의 간재를 만는다. 동영 바닷가에 서면 '과도야 어찌란 말이냐 는 탄식과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 라는 청마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내 고향은 경남 동영이다. 한반도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다. 유자가 견신할 정도로 따스한 고장이다. 한산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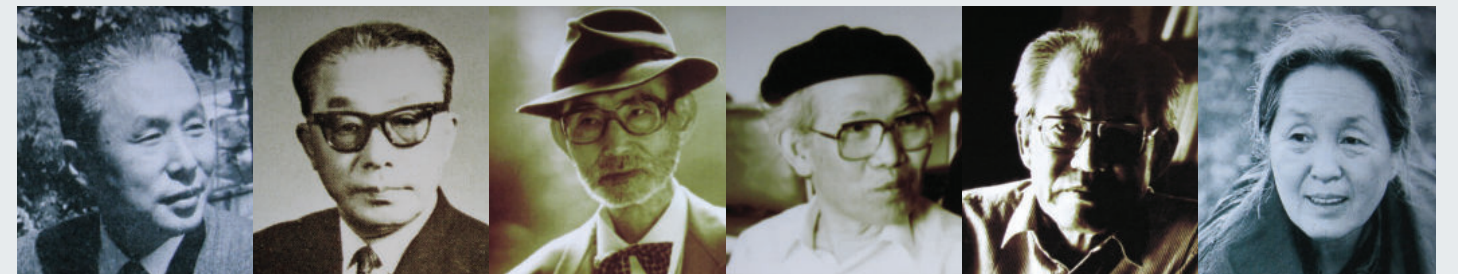
어수로 이어진 이른바 한려수도로 트인 바다가 이를 데 없이 아름답다. 늦봄으로부터 신록전에 이르는 한 달 남짓 한 바다 물빛은 그야말로 초록이고 남빛이다. 바다의 표정은 물론 파도에도 있지만, 그건 너무 동적이고 벅차다. 바다의 가장 예절한 표정은 그 물빛에 있다. 계절의 주이에 따라 더없이 빈잔한 것이 바다의 물빛이다. 겨울에 바다는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가라앉은 빛깔을 하고 있다. 남빛으로 보일 때가 많다. 혹 어찌나 햇살에 비늘을 반짝이게 하는 수가 있지만, 그런 때는 그 부분만이 밝은 은빛으로 잠깐 피어난다. 그러나 곧 시들고 만다. 봄이 와서 바람이 봄을 풀게 되는 바다는 껍질을 벗는다. 꺼칠꺼칠하고 어두웠던 껍질을 벗고 마치 나무에 속잎이 피어나듯 연꽃빛의 뽕살한 속살이 기슭 가까운 곳에서부터 번져 간다. 하루 온종일 바다가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런 표정이 된다.

- 김춘수

김춘수의 시는 동영 앞바다의 물빛에서 차우 피 올린 것이 아닐까? 시인의 예리한 눈에 잡힌 바다는 끈없이 봄을 뒤척인다. 우리 蠶絲처럼 한마디로 형용 할 수 없는 색이다. 하나의 시물이 얼마나 현란한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는 고향 바다에서 간파한 것이리라. 드넓은 상징의 바다에서 전 국민의 애송시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고독한 무의미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듣는 김춘수도 인생동안 동영에 대한 애뜻함을 품고산다. 어린 나이에 서울로 유학 간 그는 유년기의 평화롭던 고향에 대한 기억을 환청으로 듣는다. 한때 신존주의에 심취했던 시인답게 그립다는 말 대신 지도를 보며 향수병을 치유했나보다. 그렇게 형성된 원초적 무의식의 세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의 심층부에 가라앉아 詩의 보물창고가 되었을 것이다.

열네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 나는 지도만 들여다보며 지냈다. 지도에 그려진 내 고향 동영, 그 해안선, 뽕밭처럼 날카롭기만 하던 그 무수한 요철, 거기(지도)에서도 가끔 세 나는, 분세가 우는 소릴 나는 들었다. 가늘고 예치롭고 너무 깊어 끝이 보이지 않던, 길을 가다가 요주도 분득 듣는 그 소리, 환청일까, - 부유스님, 뿌유스님, 김춘수

것임을 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초정은 서화나 도자기 같은 우리 문화에 관심이 남달랐다. 단순히 詩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물 자체의 역사적 배경에도 애정을 쏟는다. 「白磁賦」나 「청자부」가 좋은 이유는 그들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시인의 따뜻한 시선 덕분이다. 「몽신화」에서는 우리만의 끈끈한 정서를 영롱하고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



유치진,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윤이상, 박경리 (동영향토역사박물관 소장)

어 정가를 끌어일으킨다. 시조의 현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초정만한 시인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바우 받이 바로 장인의 고장인 통영이다.

지금도 너는 온다. // 혼자 바라보는 / 냇유리 창살 / 진눈깨비 오고, // 얼유 살 찢긴 / 白磁 항아리 / 실구으로도 오고 // 서리 친 파발에 / 돌아난 팻줄 / 파랗게 질려서 오고, // 지금도 종종 / 그렇게 / 너는 오고 있다 //

- 너는 온다, 김상옥

박경리는 20대에 통영을 떠나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의 무대 뿐 아니라 서사적 구조도 거의 고향이 모티브이다. 『토지』도 외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고향을 찾지 않은 이유는 애증이 교차하는 그의 개인사가 한몫 했을 것이다. '고향이란 인간사와 풍물과 산천, 삶의 모든 것의 추억이 분해있는 곳이다. ...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자신이며 30년간 내 분화의 지주요 원천이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까지 가서 의식의 의상을 걸친다는 것이 끔찍스럽다. 그리고 사랑했던 곳이기도 ... 『토지』를 끝낼 때까지만이라도 보석(고향)에 하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너무 비루다가 기회를 놓친 박경리는 지금 비록산 기슭에 분해했다. 국어사전과 재봉틀, 통영소복장이 만든 장롱을 유품으로 남기며 이 세 가지가 분해와 생활, 예술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종종 낚시를 하러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때면 우리는 아무 말없이 잠자코 배위에 앉아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나 다른 어부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도창이라 불리는 유유했던 노래인데 수면이 그 울림을 멀리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바다는 공명판 같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 했습니다. - 윤이상

고향을 지척에 두고 예술혼을 닦아질 사람이 있다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당국의 저지로 윤이상은 고향을 기슭에 분고 살았다. 각수성이 풍부한 유소년시절부터 그는 통영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다채로운 전통문화와 새로이 유입되는 신문화를 온몸으로 호호하며 성장한다. 유교적인 제사의식, 선비들의 풍류, 유랑극단의 공연, 부유한 친척의 잔치 때마다 들었던 기생들의 노래와 전통악기 연주, 통영 오광대놀이, 무당의 굿, 석가탄신일 비록산의 연등제, 승녀들의 예갈소리와 범종소리, 정월 대보름의 다리밟기와 연날리기, 5월 단오제, 어부들의 남도창 등을 통해 청유의 세계에 입문했다고 한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고국의 암담한 현실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일본 근처의 공해상에서 통영을 바라보다 독일로 돌아가기도 했을까. 그 많은 꺾박을 받고도 「나의 땅 나의 조국」이나 「광주어 영원하네」 같은 곡을 만들었다. 두 대예술가의 고향에 대한 태도는 달랐지만 애정은 누구보다 컸음을 고백했다.

통영 사람은 고집이 세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한번 세운 주장을 잘 굽히지 않는다. 그런 만큼 독립심이 강하다. 통영중앙시장의 상인이나 유식점 종업원도 자부심이 대단해서 구차하게 치근덕거리지 않는다. 정가어린 사투리로 조근조근 설명하고 자신의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기차 없이 물러서거나 다른 집을 추천해준다. 개성은 남 다르지만 유식에 관해서는 모두 한통속이다. 어찌나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는지. '충무김밥? 통영사람들은 안먹어요. 그게 유식입니까?'

비록산공원에 올랐다. 사람을 너그럽게 하는 바다이다. 반짝이는 물결, 한산데첩의 궤적이 점점이 막힌 수많은 섬들, 그들이 그리는 곡선에 시선이 닿는다. 바다가 주는 고립과 생명의 소용돌이가 말을 잃게 한다. 이 아늑함이 아닐까. 통영의 예술가가 천착한 것이. 고향이란 풍성한 서사이면서 또한 풀어야 할 영원한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냉엄한 武와 技의 후예가 아니었는가. 남다르게 버린 낚시를 휘두른 것은 유난한 '통영사람'의 자존감 탓이리라. 통영누비의 촉촉한 손씨에 탄복하면서도 가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길이다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하던 장인의 형형하리만치 맑간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편집부





쪽빛 한 술에 청색 잉크 한 방울



전혁립 미술관은 경남 통영 비록산 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이곳이 미술관임을 알 수 있는 독특한 외관이다.父子인 전혁립과 전영근 화가의 작품을 세라믹 타일로 구워 붙인 건물 벽면은 또 하나의 작품이다. 특히 건물 3층 정면에는 전혁립 작품 〈창〉을 대형벽화로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마치 전시실을 감상하기 전에 선보이는 일종의 前奏 같다. 수천 장의 타일이 반쯤어낸 조화에서 이곳에 깃든 예정과 자부심이 진하게 느껴진다.

전혁립 화백은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강렬한 오랑색을 주조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펼쳐 나갔다. 〈한려수도〉처럼 통영을 주제로 한 풍경 뿐 아니라,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책거리·학·오리·떡살부늬 등을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냈다. 〈새 만나라〉를 보면 세명관의 천장에 그려진 단청분양이 떠오른다. 이렇듯 그의 작품 속에는 한국의 전통적 모습이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이 가지는 기본

성격이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그 내면을 중시하며 조형감과 색채로 한국적 색면추상을 표현하였다. 캔버스 뿐 아니라 접시·바가지·도자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투각기법을 써서 그림을 3차원으로 나타냈다. 젊은 시절 문학과 철학에 심취했고, 同鄉 예술가인 김준수, 유치환, 윤이상, 이중섭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졌었다. 개성 있는 작품을 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던 전혁립은 "회화는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된다. 철학적이고 분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좋은 작가가 된다."라며 화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피력했다.

그에게 푸른색은 다도해의 빛깔이기 전에 어머니와도 같은 색이었을 것이다. 통영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얼마간의 부산생활을 제외하고는 90을 넘는 삶을 바깥하기까지 이곳 통영과 함께 했다. 그녀기에 뿔속까지 파고든 그 색채를 표현하는 것이 일생에 業이 아니었을까. 푸른색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화가, 김환기가

있다. 동시대를 살아갔어도 화가로서의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 김환기는 화단의 시선을 받으며, 대학 강의나 유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펼쳤다. 반면, 전혁립은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서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갔다. 중앙의 관심도 늦은 나이에 이루어졌다. 물론 두 작가 모두 한국적 정취가 풍겨나는 소재들을 많이 다루었고, 정형화된 이미지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림 속에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삶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표현한 푸른빛도 같지 않다. 김환기의 푸름이 동원적이며 진한 그리움과 꿈을 담은 하늘의 색이라면, 전혁립의 그것은 그의 삶 내내 휘감아 돌았던 생명이 깃든 바다의 색이라는 느낌이 든다. 파란 물감에서 웬지모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이 아이러니가 전혁립의 매력 아닐까.

아직 준비 중인 전시실이 있다. 그곳은 전화백의 작업실이였다. 물감자국이 여기저기 찍혀있는 분을 열자 선생이 사용하던 화구며 옷가지, 그리고 겨겨이 쌓인 미완의 캔버스들이 눈에 들어온다. 작업실 바닥은 오랜 세월 작업의 흔적인 늦 온갖 물감이 뽀뽀이 묻어 있다. 마치 조금 전까지 작업을 한 듯 생생하다. 생전 모습이 담긴 몇 장의 사진 중 온통 푸르게 물든 화가의 손이 보인다. 노화기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전해진다.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화가의 작업실 이기에 마치 한 발 더 가까이 간 듯 한 느낌이 들고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건물 원편의 아트샵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화백의 작품세계처럼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있다. "아버지가 일생을 보낸 이곳에서 그 예술혼을 잇고 싶었습니다. 미술관 설

립은 화가로서 받은 관심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환원 차원이기도 합니다.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턱을 낮추어야 손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요. 운영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노후화가 생겼으니 자생력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전영근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미술세계를 구축하는 화가로서, 또한 관장으로서 스스로에게 던져진 도전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전혁립 화백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화가이다. 전업화가로 일평생을 오로지 자신이 택한 길을 걸어왔고, 어머니 똥 같은 고향에서 그만의 색을 창조해 냈다. 반년까지 작품에 몰두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강인한 체력 덕분이다. 작고하기 전인 올해 봄 서울에서 〈전혁립·전영근, 아버지와 아들 동행 53년〉 2인전을 열기도 했다. 아들은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자처했다.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화가들이 겪는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끝까지 보필해 준 아들까지 두었으니 분명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미술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건물 외관에는 잿빛 콘크리트 속살이 간간히 보인다. 미완의 부분을 현대적 이미지의 부조로 꾸민 예정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는 미술관, 전혁림 화백이 100년 가까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온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 아닐까 싶다.

‘쪽빛 한 술에 청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일어나는 번짐의 가장자리 색’이라고 전혁림은 코발트갈루를 표현했다. 나는 봉영에서 그 빛깔의 바다를 바우껏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를 유미했다.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곳에는 이렇듯 따로 똑같은 푸르른 바다가 있다. 편지부

- 01 _ 미술관 전경
- 02 _ 전혁림/새 만다라(New Mandalla), 2007년작
- 03 _ 전혁림 화백의 손
- 04 _ 전혁림/민회로부터, 165cm×140cm, 캔버스, 오일칼라, 2002년작



隱者가 사는 곳 _ 題黃裳幽人帖

| 著 _ 정 약 용
| 譯註 _ 유 건 집

이 글은 다산의 제자인 황裳이 스승에게 隱者의 거처는 어떤 곳이 좋은 지를 물었을 때, 다산이 써준 것이다. 이 안에 다산이 가진 생각이 배어 있기에 소개한다.

隱者가 사는 곳

담진강진의 黃裳이 幽人이 살기 좋은 處가 갖추어야할 조건 들을 묻기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부지를 선택할 때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을 택해야 하는데, 강 옆의 산보다는 개울 옆의 산이 좋다. 봉리 입구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막힌 듯 서있고, 들어서면 화 트어 보기 좋은 곳이 바로 福地이다. 그 가운데 형국이 갖추어진 곳에, 건조한 띠집 서너 칸을 짓되, 佩鐵로 재어서 정남향으로 앉힌다. 집을 다스림에는 북시 정성하여 교묘하게 해야 한다. 순창에서 나는 雉紙로 도배하고, 분의 윗방 위에는 가로로 그린 淡墨의 산수화를 걸고, 분 옆에는 고북이나 石竹의 그림이나 혹은 짧은 詩句를 건다. 방 안에는 서가 두 개에 책 천삼사백 권을 꽂는데, 『周易集解』, 『毛詩疏』, 『三禮源委』 및 고서와 명화나 山僻地點, 변자리와 曆法, 의약서적, 陣地를 구축하고 군사를 훈련하는 법, 軍需物資의 조달과 초복과 조류며 어류에 관한 譜錄, 農政水利의 학설, 棋譜 琴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갖춘다. 책상 위에는 논어 한 권을 펼쳐 놓고, 옆의 檯檯로 만든 상 위에는 陶器, 謝靈運, 杜甫, 韓愈, 蘇軾, 陸游의 시 및 『中州樂府』, 『列朝詩集』 등 몇 권을 올려놓는다. 책상 아래에 烏銅香爐 하나를 두고, 새벽과 저녁때에 옥유향 한 굵은 썩을 피운다. 뜰 앞에는 두어 자 높이의 檿籬 하나를 치고, 안쪽으로 온갖 화분을 놓되, 석류·치자·백련 등으로 풍격을 갖추며, 국화를 가장 많이 구비한다. <중략> 뜰의 왼편에 바른 대나무를 엮어 외쪽 분을 세운다. 사립분 밖 이어진 신언턱을 따라 50부쯤 가서, 개울 바로 옆에 추가 한 칸을 세우고, 대나무로 난간을 만든다. 집 주변은 숲이 우거지고 대나무가 뻗어서 그 가지들이 처마에 닿아도 꺾지 않는다. 개울을 따라 백어부를 가서, 沃土 몇 바지기를 얻는다. 매년 늦봄에 지팡이를 짚고 밭둑에 나가서, 가지런히 돋은 비싸을 보면, 푸른빛이 나를 물들여서 한 줌의 俗氣도 없을 것이

다. 하지만 뽕소 농사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개울을 따라 몇 걸음 가서, 물레가 5, 6리쥬 되는 제망을 만난다. 제망 안에는 연꽃, 바둑, 가시연들이 떠 있고, 거룻배 한 척을 반쯤 띄어 놓고, 매일 밤 시인북재들과 더깁어 배를 띄운다. 뽕소 밭고 거분고 뽕기며, 제망을 따라 서너 바퀴 돌고, 취해서 돌아온다. 제망으로부터 몇 리 떨어진 곳에 조그만 절 하나를 둔다. 그 안에 이류 있는 한 승려를 두고 참선도하고 법을 설하기도 한다. 그는 시도 좋아하고 술도 마우데로 마시며, 갈가의 세월에 구에되지 않는다. 때때로 가서 함께하다가 돌아오면, 마우속의 감정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집 뒤에는 큰 조래송 몇 그루가 龍虎相搏의 자세로 버티고 있고, 그 아래에는 백학 한 쌍이 노닌다. 소나무 동편에는 작은 채소밭 하나를 일구어서, 인삼, 도라지, 강리, 들미나리 등을 심는다. 소나무 북쪽에 있는 작은 사립분을 들어서면 잠실 세 칸이 있는데, 누에 반 인곱 층이 놓여 있다. 매일 점심 후 차를 마시고 잠실에 이르러, 아내에게 송엽주 두어 잔을 가져오게 해서 마시고, 누에치는 법이 적힌 책을 아내에게 건네며 마주보고 웃는다.

밖에는 이미 [조정에서 나를 오라는 글이 왔지만, 밧그레 웃으며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곧 주역의 履卦 九二의 吉兆이다.]

[前略]



蛇足

다산이 강진 귀양시절 대화하기 좋아한 대상이 兪菴이었다면, 三勤戒를 주며 가장 아낀 제자가 黃裳이다. 중인 출신이기에 과거에 응시를 못할 것을 알고, 詩에 전념하게 해 성공한 제자이다. 秋史가 황裳의 시를 읽고 황裳의 시는 杜甫를 빼로 하고 韓愈를 삼로 하여 漢唐에 맞지 않았으니, 다산의 제자 중에 제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流配에서 풀리자 바로 황裳을 만나니 栗山房황裳의 거처를 찾을 정도였다. 황裳의 다산에 대한 존경심은 평생토록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는 다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師父의 정도를 넘어선 '夫子'의 호칭을 항상 썼다.

이 글에는 다산의 철학이 스민 흔적이 있다. 우선 [전략된 부분이 <주역>의 履卦 九二를 인용한 부분이다. 그 卦辭를 풀어서 집터를 마련하고, 吉地를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광대하거나 設置가 사치하지 않으면서도 淸위를 잃지 않고, 주인의 자연 친화적인 흥취를 마우껏 누리기 좋게 설계 했다. 집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걸려든 서화는 아취가 높고, 수많은 서지에서 해박한 대가의 정신이 배어 있다. 강을 낀 산보다 개울을 낀 산이 좋다는 말이 바로 다산의 龍溪다. <중략>된 부분은 菜田과 밭의 花卉에 관한 것이다. 논어 한 권만은 언제나 손앞에 둔 것은 곧 陶山私淑錄과 이어져 그가 철지한 유학자임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정도에 넘지 않게 소박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가 실용적인 것을 지향하는 학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는 경서, 산경지지, 의학, 군사, 농정, 수리 등 드넓은 학문의 바탕에, 음악, 서화, 화훼에다 술과 차가 있는 갖추어진 선비의 거처다. 거기에 연꽃과 호수에 띄운 배가 있고, 정자와 벗이 있어 모자람이 없다. 다산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관계를 맺은 高승에게까지 비쳐서, 세속을 떠나 서로 마우껏 얘기할 수 있는 도력을 갖춘 승려 한 사람과 고즈넉한 절, 그리고 그는 僧作에 얽매이지 않는 초탈한 고승이기를 원했다. 아마 아람을 생각했으리라. 끝으로 잠실에서 아내와의 和睦은 錦上添花다.

님들은 갔지만 아직도 그들의 자취는 남아서 우리를 숙연케 하고 있다. 🐍

“길의 신이여, 서라!!!”

- 남근형 木簡으로 본 백제의 길제사

글_ 윤 선 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북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서사재료를 말하며, 종이 발명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물론 종이 발명된 뒤에도 나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내구성도 좋아서, 종이와 함께 매우 오랫동안 서사재료로 이용되었다. 또 나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인 '男根形' 북간처럼 특이한 형태의 주술용 북간으로도 제작되었다.

목간의 보존환경

북간은 썩기 쉬워 저습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굴된다. 고대의 연못이나 우물, 도랑 속에는 천년 이상 썩어 진흙이 쌓였고, 이로 인해 산소가 차단되고 나무가 썩지 않아 물속 댐 층에서 천 년도 더 된 고대의 북간이 처음 모습 그대로 발견된다. 유기분이 살아남는 이러한 저습지의 보존환경에 대해 최근 고고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80년대에 50여점에 불과했던 북간 출토점수가 현재 600여점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날도 충남 부여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적에서 백제북간 6점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의 定馬樞三國吳簡이나 일본의 나가야왕기북간(長野王家木簡)처럼, 우리도 고대의 우물이나 폐기장에서 북간 수만 점이 한꺼번에 발



01

굴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고대북간에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국가의 회계 장부에 이르기까지 고대사회의 각종 기록물이 모두 확인된다. 또한 북간의 墨書는 당대인의 육필이며, 그 내용이나 형태, 출토지 등을 통해 북간의 제작과 폐기에 이르는 '북간의 일생(life cycle)'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내용 외에 고대인의 일상과 문자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반지고,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필자는 분명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과학과 주술

완전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근대의 과학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병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당히 없애주었다. 우리는 왜 비락이 치는지, 왜 추운 겨울이 오는지, 우리의 몸에 왜 병이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배워 알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몰랐던 백제인들은 어쩌했을까? 우리는 고대인들이 광폭한 자연재해나 전염병 앞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뒹뒹 떠돌고 있는 모습을 흔히 상상한다. 그러나 이는 정답일 수도, 또한 오답일 수도 있다. 두려움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끝 모를 두려움이 그대로 망치된다면 사회는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백제 역시 사회통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의 두려움과 공포를 완화하고 치유하려고 애썼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백제는 고대국가라고도, 분령국가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백제 국가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치유했던 것일까?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고 있다면, 백제인들은 신과 주술에 의지했다. 과학과 주술은 모두 '비지의 세계'에 대한

그 시대 나무의 단면이며 설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백제인들에게 신과 주술적 사유는 두려움에 맞서고 마유의 안정을 되찾는 절대적 근원이었다. 충남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백제의 남근형 북간도 그에 관한 훌륭한 증거물 중 하나이다.

능산리 절터의 발굴

충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도성이 있었던 곳이다. 능산리 절터는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된 동나성의 제31"趾와 백제 왕릉인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한다. 발굴 결과 이 절은 중분, 북탑, 구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된 1탑1구당의 전형적인 백제식 기단으로 밝혀졌다. 특히 절터 내에서는 백제 금속공예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龍鳳金銅人香爐가 출토되었다. 또 북탑의 사리장치를 통해 567년 위례왕대에 건립된 왕실의 원찰로 인근의 왕릉을 위한 陵寺로 기능했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능사 남쪽에는 도로가 반쯤어져 있었고, 이는 사비도성 외부에서 백제 왕릉, 능사, 나성의 능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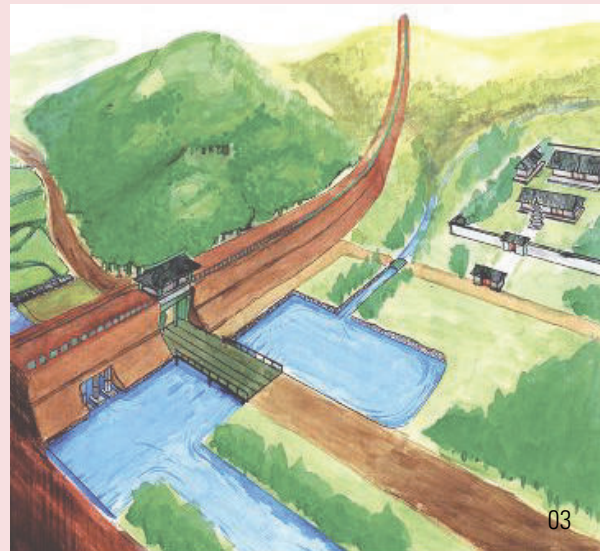
02

등을 거쳐 도성 내부로 들어가는 중심도로에 연결되었다. 이 길의 주인공인 남근형 복간은 절터의 농서 양쪽 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흘러내려 합류하는, 농사 남측의 도로 인근 불용녕이에서 발견되었다. 농사에서는 많은 복간이 출토되었지만, 남근형 복간보다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없다. 이 복간은 길이가 22.6cm인데 '남자의 성器' 모양을 하고 있어, 발굴초기부터 '남근형' 복간으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복간은 형태상의 특징으로 인해 주술적인 성격의 복간이라는 견해들이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복서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용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근형 목간의 묵서와 용도

이 복간에는 돌아가면서 4행에 걸쳐 복서와 각서갈로 세긴 글이 있는데, 정면에 '道陽立立立'이라는 독특한 분구가 기록되어 있다. '陽'은 『說文解字』와 『初學記』 등에 '길제사道[祭]나 길의 신道神'으로 나온다. 결국 복간 정면의 '道陽立立立'은 '길道의 신인 陽이여! 서라! 서라! 서라!'는 의미의 주술적 분구이며, '立立立'을 세 번 연속 쓴 것은 가뭄을 겪한 강조법으로 이해된다. 길제사는 신라나 고대일본에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도성의 사망 입구나 외곽 도로에서 길의 신께 폐백을 올려, 도성으로 들어오는 온갖 부정한 것을, 예를 들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거행한 국가의례였다. 옛날 사람들은 역병이나 재해를 '귀신과 도깨비[鬼魅]'의 장난으로 보았고, 이 귀신과 도깨비도 사냥처님 길을 떠나 걸어서 도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남근형 복간이 출토된 농사는 사비도성의 외곽인 농사성의 제3분지와 농산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분은 나성의 다른 성분들과 달리 평지에 입지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도 제

일 크다. 현재 이 분지로 부어~논산간 국도가 지나가고, 이 길이 공주나 논산 방면에서 부어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백제 당시 이 분은 각 지방에서 사비도성으로 사함과 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들던 사비나성의 대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나성 자체가 도성의 수호를 목적으로 쌓은 것이고, 나성대분은 도성출입을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병이나 온갖 나쁜 기운들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행했던 길제사의 장소로는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이 없다.



남근에 대한 주술적 사유와 전승

길제사에 사용된 이 복간이 왜 하필이면 '남근'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正初에 사악한 기운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호랑이와 닭을 분에 그린다거나, 버드나무를 분에 매다는 민속은 모두 유양오행과 관련된 것으로, '陽物'을 대표하는 호랑이, 닭, 버드나무 등으로 陰濕한 기운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남근'을 빼놓을 수 없다.

양물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남근을 상징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남근형 복간의 정면에 기록된 "길의 신이여, 서라!!!"는 말은 바로 남근의 받기, 즉 "남근이 섰다!!!" 이제 사악한 귀신과 도깨비는 두려워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제의 길제사에서 神物로 사용된 이 남근형 복간은 형태나 용도가 모두 후대 조선시대의 '장승'과 배이 닮아있다. 장승도 경계의 界標로서, 외부로부터의 凶災를 막는 거리祭 때 세우며, 지역에 따라서는 복제의 장승 대신에 남근석이 신주로 모셔지기도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고대일본 이래 현재까지 길제사의 神物로 '남근'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길제사 전승지역이 고대 한반도의 渡來인들이 거주했던 지역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백제의 남근형 복간이 동아시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을 잘 말해준다.

사비도성의 경계와 의례

이처럼 백제 사비도성의 경계에는 독특한 경관이 연출되어 있었다. 도성의 입구에는 도성과 왕권을 수호하는 장엄한 국가시찰과 왕궁이 건립되었고, 또 역병 등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정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길의 신인 '남근'을 세우는 성대한 국가의례가 농사에서 거행되었다. 고대국가의 도성은 독특한 도시경관과 상징적인 장엄의례를 통해 국가권력의 위엄과 중심을 연출해낸다. 도성은 마치 거대한 廟場과 같다. 도성이라는 '무대장치'에서 메풀어진 장엄의례는 세규를 운반하여 상경하는 지방인에게도, 도성에 거주하는 관인에게도, 똑같이 거대한 권력을 체감케 하여, 그들의 바우속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속의식을 깔아입히는 힘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성의 경계지점은 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접점이고, 지방인이 도성으로 들어오



01 _ 부어 농산리 절터 출토 남근형 목간
02 _ 용몽금동대항로 출토 당시 상황
03 _ 백제 당시 농산리 절터 주변 복원도
04 _ 일본 길제사의 신물

는 입구이며, 도성이 사망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백제국가 전체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백제의 지방인들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농사를 차우 접하게 된다. 그들은 화해하고 승엄한 갈고시찰과 그 제사의례에 압도되어 영원불멸하는 백제 왕권을 상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비도성의 羅城도 전쟁만을 고려했던 방어벽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나성은 도성 안의 백제지배층을 부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賊인 수도, 謀叛인 수도, 또한 전염병인 수도 있는-그들이 느끼는 모든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도성을 수호하는 가장 장엄한 경관이었다고 생각된다. 🐼



샐러드를 '시발'에 담아서

글_ 노미애 회원

여행은 봄에서 시작됐다. 친구들과 일본소셜 번역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올해 초 일본소셜 속에 '볼(bowl)' 이라는 영어단어가 나왔다. '시저샐러드를 중국 국수 그릇처럼 생긴 유족 들어간 볼에 담아서' 라는 글귀인데 친구가 영어 그대로 '볼' 이라고 번역했다. 마음에 걸렸다. 꼭 영어를 그대로 써야 하나. 우리 그릇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다. 넌지시 시발로 바꾸자고 제안했더니 다들 조용히 웃는다. 웬지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릇 대접은 어떠냐고 하니 이번에는 더 크게 웃는다. 샐러드가 무슨 국이냐고 한다. 쏙 멋쩍었다. 샐러드는 서양음식이므로 그릇도 영어 그대로 붙이라고 해야 이미지가 맞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고 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도 하다.

그렇다고 냉큼 볼로 가기에는 영 석연치 않다. 샐러드야 우리 음식에 없으니 영어 그대로 쓴다 해도 우리 그릇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써야 할 것 같다. 유럽에서 잠깐 생활할 때 실제로 시저샐러드를 유족 들어간 그릇에 담아 먹은 적이 있다.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접시에 먹는데 여기서도 속이 깊은 그릇에 먹는구나 싶어 내심 신기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무척 낮익었다. 모양이 우리나라의 대접이나 시발과 별다른 바 없이 크기만 약간 클 뿐이었다. 그때가 생각나자 더욱 우리 이름을 쓰고 싶어졌다. 그렇다고 시발도 아니요 대접도 아닌 더 적당한 이름을 알고 있지도 않다. 어찌면 시발이나 대접 말고 다른 명칭이 있을지도 모르며, 찾아내 쓰다보면 입에 붙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 광주 분원대 백자 자료관에 갈 기회가 있었다. 자료관으로 들어가는 길복에 차우 보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시발, 유파리……. 아마 그릇 명칭인 듯 싶었다. 그곳 직원에게 물었더니 국수 그릇처럼 유족 들어간 그릇을 통 털어 '발' 이라 한다. 집에 와 인터넷으로 그릇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시발·대접·접시·종지·주발·보시기·유파리·바리·재배기·버치·훈주……. 차우 보는 이름들이 많다. 이렇게 예쁜 이름들이 많을 줄 전혀 몰랐다. 유럽에서 먹은 그릇과 비슷하게 생긴 그릇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시발과 대접, 훈주가 제일 적당해 보인다.

얼마 후, 박물관 특설강좌 전시관 교육이 있었다. 평소 박물관도 도자기실에 가면 그릇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메병이나 달항아리 같이 큼직한 도자기 앞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참 곡신이 예쁘네, 색깔이 곱네 하며 감탄했다. 이번에는 우리 그릇을 유심히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내 그릇 여행은 시작되었다. 차우에는 그냥 돌아보았고, 두 번째는 사진을 일일이 다 찍었다. 그러나 의외로 박물관의 전시물 중 보물로 지정된 시발과 대접은 그리 많지 않았다. 먼저 도자기실에 있는 시발과 대접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분이어서

그러니 우리네 생활식기와는 비교가 안되게 아름답고 크기가 크다. 그냥 보고 즐기는 예술작품 같다. 저리 아름다운데도 보물이 아니니 보물로 지정된 것은 얼마나 뛰어난 걸까 라고 감탄도 해본다. 백자는 백자대로 청자는 청자대로 색이 은은하고 메끄럽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현대 사기 그릇과는 전혀 품격이 다르다. 그런데 두번을 들고 또 들며 봐도 시발과 대접이 구분이 안 간다. 집에 와 찍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그제야 구별이 간다. 시발은 대접보다 속이 더 깊고 둥글며 굽이 더 높다. 훈주는 큰 대접처럼 생긴 도자기나 옹기그릇으로 크기와 쓰임새가 다양하다. 샐러드를 담기에는 크다고 한다.



청자상감은몽문화형대접, 고려, 13세기

박물관에 있는 사발과 대접은 모두 영어 bowl로 번역되었다. 유럽에서 샌드리를 먹은 그곳은 대접보다 사발에 가깝다. 마침 다시 두번째 <신석기식> 전시관교육이 있었다. 학예사 설명을 들으며 슬쩍 유물 이름표를 보니 같이 뾰족한 토기에 이름이 바리 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영어 bowl이라고 적혀 있다. 저런 모양의 토기가 사발과 대접의 원조인가 보다. 그런데 바리 는 절에서 쓰는 그곳인 줄 알았는데 버리가 더 복잡해진다. 사발과 대접을 겨우 구별하게 됐는데 이제 바리 까지 헷갈리게 만든다. 도자기실만 볼 게 아니라 박물관 전체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석기시대부터 여행을 떠났다. 석기시대를 다 여행하고 나니 위가 넓고 밑이 뾰족한 토기는 바리 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황남대총 전시실에서는 잠깐 눈요기나 하면서 한숨 돌릴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에 빠졌다. 사발은 흙으로 빚은 그곳인 줄 알았는데 황남대총 전시실에 있는 유물 중에 규사발 이라는 사발이 있다. 박물관 안에서만 하는 유물 여행도 쉽지 않음을 절감한다.

여행을 마치면서 박물관에 문의했더니 친절하게도 메일로 답장을 주었다. 사발이나 대접, 받을 모두 bow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그곳 이름이 더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제 아쉬운대로 그녀나 자신 있게 여행에 바침표를 찍으려나.

<시저 샌드리는 풀이 아니라 사발에 담아서>

처음 친구들에게 '사발' 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머리 속에 밥사발이 먼저 떠올라 샌드리와 사발이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듯했다. 그러나 여행하면서 자연히 사발은 속 깊고 넉넉하며 품위 있는 그곳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또 자꾸 우리말을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참고로 유파리는 사기로 만든 아가리가 오복한 바리이고, 보시기는 긴치 깎두기그릇이며, 자매기는 아가리가 앙글레 넓적하게 벌어진 옹기그릇, 비치는 자매기보다 조금 깊고 아가리가 벌어진 큰 그릇을 말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릇 이름들을 이번 여행에서 녀름으로 얻으니 참으로 유익한 여행이었다. 🍷

황남대총전을 보고

글_ 박진원 회원

국립중앙박물관의 <황남대총전>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다. 물론 국립박물관의 기획전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번 전시는 황남대총 발굴 후 처음으로 그 진면모를 보여주며,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유물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박물관 강의를 듣기 시작한 후, 아니 이제껏 내가 본 전시회중 제일 기억에 남는다. 역사공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해 준 전시이기도 하다.

<황남대총전>에서 보여준 1600여 년 전의 문화가 현세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숨 쉬며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쓰던 물건도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진다. 하물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땅 밑에 묻혀 있다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유물들이야말로 발굴작업과 이를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먼저 발굴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발굴은 어떤 것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행위이자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는 말이 이번 전시만큼 생생하게 와 닿는 적은 없었다. 황남대총은 197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황남대총을 발굴함으로써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게 된 것은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다.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은 그 시대 최고의 물건들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는 엄청나다.

반면에 무덤을 발굴하는 행위는 死者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무덤은 죽은 자의 쉼터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분헌 사람이 일반 평민이 아닌 높은 신분의 사람이거나 왕의 무덤이라면 후세에 또 다른 의미를 준다. 즉, 죽은 자의 쉼터라기보다 문화적, 역사적인 면에 가치를 부여한다. 발굴 시, 제사나 의식을 거행하고 유골은 다시 무덤 안에 안치 하는 등, 사자를 위한 매여가 있었다. 그래도 죽은 자의 쉼터가 파헤쳐지고 부장품들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분명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죽은 이에 대한 예의와 내세에 대한 염원으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쉼터였던 무덤도 세월이 지나면 본래의 역할은 사라진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디어캡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사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아직은 확실히 누군지 모르는 황남대총의 주인에게는 송구스런 바우어나 우리는 그 무덤을 통해 신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1600여년이 지난 후에도 왕으로서 후손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보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나온 유물 중 가장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외국으로부터 전해 온 유물들이다. 가까이는 고구려, 멀리는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것들이다. 신라 사람들이 당시 서역이나 그곳보다 더 멀리 갔었다고 주장하는 분화장사꾼이란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시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을 하고 있었고, 동쪽 끝에 위치한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화된 현재에도 외국의 문물을 보면 아직도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런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데도 몇 달이 걸렸을 그 당시에 유럽이나 혹은 중근동 지방에서 전해져 온 문물들이 신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충격을 주었을지는 짐작할 수 없다. 깨지기 쉬운 유리병이 몇 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신라의 왕에게 전해졌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무덤에 부장되었다. 1600여년이 흐른 후 다시 발굴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화의 전파라는 큰 흐름에 대해 흥분을 느끼게 한다.

박물관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 있던 주제 중 하나가 상고사였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추정할 때, 멀리 알타이 산맥의 더 서쪽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민족의 이동이란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졌는가. 인류는 생겨난 이후 끊임 없는 이동과 발전·소멸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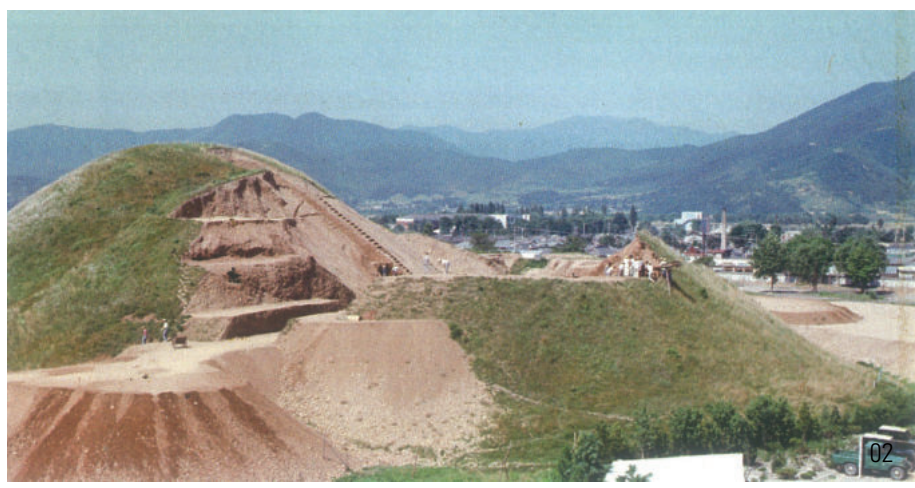
01

해 왔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족과 문화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너무도 확실히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페르시아에서 또는 유럽에서 건너와 황남대총에 묻힌 유물들은 이러한 인류의 끊임없는 이동과 발전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증거물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 왜 그리 관심이 있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왜 중요한가를 묻는 사람도 있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래는 현재를 지나서 생기는 것이고 과거란 우리가 지나온 길이다. 역사를 알고 밝혀내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600년 전 신라인들은 당시의 관습대로 6개월 정도 걸려 왕을 추모하기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정성 들여 장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묻었고, 심지어는 순장도 하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 그의 부인이 죽었다. 아마도 아들이 부모를 기리고,

또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죽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끝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백골이 진토가 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고서 무덤이 다시 열렸다. 당시 사람들이 넣었던 유물들이 발굴되어 후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화적인 자긍심을 주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풍습들이 그때는 보편화된 것이라는 점도 알려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것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황남대총의 유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물건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같은 물건을 보면서 1600년의 세월을 사이두고 조상들의 생각과 삶을 다시 그려보는 작업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이것이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나의 이유이다. 🌟



01 _ 봉수형유리병, 높이 24.7cm, 국보 198호
02 _ 황남대총 발굴장면

《등준시무과도상첩》의 공신도상적 성격

글_ 장진아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登俊試武科圖像帖》의 구성과 내용을 상세히 살펴 소개하고,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에서 《등준시무과도상첩》과 그 제작 배경을 분석한 논문이다. 화첩이 지닌 공신도상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한편, 이를 통해 조선시대 초상화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양상의 일례를 파악하고, 초상화의 제작과 보존에 갖는 정치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등준시무과도상첩》은 영조 50년(1774)에 실행된 특별 시험

인 登俊試 무과 합격자들의 초상화를 수록한 화첩이다. 모두 18점의 小本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고, 초상화 주인공들의 명단, 화첩이 제작된 때와 제작 배경, 화가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등준시는 세조 11년(1465)에 차우 실시된 특별 과거 시험이다. 이 시험은 현직에 있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특별시험에 해당되었

다. 영조 50년인 1774년 갑오년에 치른 갑오등준시는 등준시를 차우 設行했던 세조의 사적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영조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실시한 시험이었다. 영조의 특별한 관심은 이 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합격자들을 포상하고, 합격자들의 도상을 그린 화첩을 제작하도록 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도상첩의 제작은 이전까지는 공신과 기로신에게만 초상화의 제작을 허락했던 전례에 비교할 때 매우 큰 예우였다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등준시무과도상첩》은 무과 합격자의 도상첩이다. 당시 합격자들의 도상첩은 분과는 예조에, 무과는 병조에 보관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어람을 위한 內人本 또한 제작되었다. 분과 도상첩의 전래 어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등준시무과도상첩》은 先祖의 사적을 본보기 위하여 행사를 거행했고, 행사에서 남다른 각회를 느낀 영조가 이를 보전하고자 제작한 화첩이라고 하겠다. 《등준시무과도상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화첩 제작과 관련된 영조의 傳敎, 둘째, 합격자 명단인 榜冊, 셋째, 합격자 도상, 넷째, 화원 座冊이다. 합격자 도상은 한 면에 한 사람의 좌우 양면에 그려져 있어 모두 18면에 해당한다. 현재의 상황 형태는 제작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이후 새로 개장된 것으로 보이나, 본래의 순서는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화첩의 초상화는 모두 좌안 7분년의 관복 반신상으로 양식상의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18세기 중반 초상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 각 작품을 홍매의 분양 형태와 얼굴 묘사 방식에 의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세 그룹(A, B,

C)과 이 세 그룹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양상을 보이는 기타 작품군(D)으로 나누었다.

그룹 간의 차이가 화원(또는 화원 가문)의 대역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같은 가문의 화가라도 기량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피사자의 개성에 따른 표현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화원(또는 화원 가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화첩 마지막 면의 화원 좌복에 기재된 화원에 대해 고찰하였다. 화원좌복에는 가봉관으로 韓宗裕(1737-?), 다음 韓宗(1738이후-?), 申漢山, 張泓, 金宗린, 崔得賢, 韓敬喆 등 화원 6명, 간역관 尹喆世, 사자관 崔宗赫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초상화 작품을 특정 화가의 작품으로 지명하기는 어렵지만, 좌복에 기재된 화원의 화풍과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층유를 중심으로 하는 18세기 초상화 제작의 양상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18점의 초상화를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세 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은 화가 개인 또는 일파가 특정한 화풍을 관습적으로 구사하면서 초상화를 제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가 개인의 特長에 따라 얼굴 묘사와 設彩 등의 분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량의 소본 초상화가 한꺼번에 제작되는 화첩식 초상화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등준시무과도상첩》을 통해 그 양상을 기늬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영조는 《등준시무과도상첩》을 공신도상에 필적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즉 등준시에 합격한 신하들을 공신과도 같이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우는

단지 도상첩의 제작에 그치지 않고 도상첩을 각각 예조와 병조에 보존토록 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등준시무과도상첩》 이전까지 신료의 초상화가 공식적으로 대내에 보존된 예는 왕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하여 제작한 《기사계첩》과 《기사경회첩》, 그리고 영조 26년의 肅武功臣(肅府畫像帖) 이외에는 없었다. 1774년의 등준시도상첩을 대내에 보관하는 것은 《훈부화상첩》을 충훈부에 보관토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신의 入閣圖形 즉, 공신들의 초상화를 특별한 건물에 봉안하거나 보존하는 것과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영조는 도상첩의 제작을 麟閣의 일로 지칭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드러냈다. 영조는 신조의 업적을 발굴하여 칭송하고 이를 본받아 실행에 옮기는 세습 사업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신조에 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등준시는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재위 말년의 영조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영조는 도상첩을 제작하고 대내에 보관토록 한으로써, 합격자들을 공신에 준하는 위치로 치켜 올렸다. 이를 통해 등준시 실행이 그러한 예우가 충분할 정도로 증차대한 세습 사업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등준시무과도상첩》이 지니는 공신도상적 성격은 조선후기 공신도상의 의미와 형식이 변모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공신상과 같이 국가적으로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는 초상화는 전통적으로 대부의 축이었다. 조선후기 들어 이러한 양상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관복본 일반 사대부 상이 성행하게 된 것은 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영조 4년(1728년)의 분부공신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공신 책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신상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

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일반 사대부들도 공신도상과 닮은꼴 관복본 초상화를 제작하였으며, 곧 조선후기 일반 사대부 초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공신도상의 성격을 지녔거나, 기로도상 등의 공식적인 초상화들은 《훈부화상첩》이나 《기사계



04



05



06

첩》, 《기사경회첩》의 예에서 보듯이 화첩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변모의 배경에는 '공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가 되면서 군주와 신료의 관계는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로서 설정되는 君臣分義의 논리가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각에서의 개관적인 논공행상을 통해 공신을 책록하고 공신훈을 사어하는 기왕의 군신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8세기에 세롭게 나타난 초상화첩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며, 이는 그동안 초상화의 역사에서 한 축을 맡아 온 공신도상의 지위가 변모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등준시무과도상첩》 역시 이러한 '변모된 공신도상'의 한 예가 된다. 그러나, 변화의 전반적인 양상과 변모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공신에 대한 예우로서 제작된 초상화 전체를 시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진전된 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별고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01_ 韓宗裕 등, 《이준기 초상》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비단에 색, 47×35.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2_ 韓宗裕 등, 《이정운 초상》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비단에 색, 47×35.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3_ 韓宗裕 등, 《이달해 초상》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비단에 색, 47×35.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4_ 《등준시무과도상첩 전교》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5_ 《등준시무과도상첩》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06_ 《회원좌목》 《등준시무과도상첩》, 177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심 사 평 |

- 작품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며 묘사력과 어휘가 풍부한 편이다.
- 문장은 비교적 깔끔하고 화첩을 통해서 당시 시험제도인 등준시에 대한 의미와 의도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다.
- 공신에 대한 예우와 공신도 양상의 변화를 미술사적으로 해석하였다. 초상화 화첩에 대한 연구로는 치밀한 점이 있다.

심사위원 김리나 (홍익대학교)

초상화첩인 《등준시무과도상첩》을 공신도첩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과 성격, 의의를 처음으로 다각적이며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단일 화첩에 대한 연구이지만 영조의 회화정책, 나아가 영조시대 궁중회화의 양상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중요한 연구이다.

심사위원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이얀 눈 세상

기와 밑 담장만 그 색을 품내고 있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초대 회장은 비롯하여 金一煥, 李人源, 송재만, 金秉錫, 鄭錫禹, 金榮秀, 俞재민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 會 長 | 柳昌宗
- 副 會 長 | 徐載完 金正泰
- 대 事 | 崔光植 金孝慈 金信韓 朴기림
成烈鎬 申秉秀 申鳳均 申憲澈
尹順敏 尹在允 鄭明勳 沈德吉
洪政旭
- 監 事 | 金義制 鄭廷海
-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선이나 조표를 기증한 산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배부 표의인, 청룡 오십의인, 배호 삼십의인, 주작 십의인, 현무 오의인, 천마 일의인, 규관 오천민원, 은관 삼천민원, 청자 일천민원, 배자 오백민원, 수정 이백민원 이상으로 한다.

- 천마회원
千仁一 사중옛날 박물관장
孫呂振 소장가 金正泰
하나은행 尹 勳 韓 국립박물관 이사장 申憲澈
SK에너지 尹順敏 SE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안나회장품 회장 朴炳宰
앤백&큐티엘 鄭在廡
(주)한신 姜德壽
(주)SIIX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其在音 Actium 부회장
-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完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동산주백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庚 國 광계사 주지
南秀淨 (주)원잇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 청자회원
柳炯泰 갤러리현대 대표
金芝延 (주)권셀 대표
鄭溶禎 신세계 부회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국회의원
申鳳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강문화사 이사장

- 김&장 법륜사부소
(주)시문드 회장
임우재단 이사장
대성산업 전무
효성그물 전무
인진홀딩스(주) 대표
OCI 부사장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수원대학교 이사장
민호사
호성통입회장
성암고서박물관장
대진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무위원
제인회계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불산(주) 대표이사
연희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 서양화가 柳衛浩
(주)회승 부회장
동훈디자인 대표
(재)애움 이사장
(주)NX(대표)이사
(주)미상교육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종로권업아카데미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 보광웨지마트 회장
고리상사(주) 부회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주)서광 대표이사
금호타이어 한국영업 부부장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NIN(주) 이사회위원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복금로갤러리 관장

- 대한전선 부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재미교포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제인모직 전무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대신증권(주)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
두산중공업 사장
경기도 부회의전당 이사장
(주)KPE 전무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성신양회(주) 부사장
KKR Asia 대표
(주)LIG홀딩스 대표이사
GLMI 대표
행남자기 전무
(주)오투기 회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금비 사장
동화약품 차장
노리홀딩스 회장

책을 만들면서..

낙엽에 이끌리어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니,
나그네가 낙엽이 되=깃 갈네!! (木)

단아공원의 노을은 황홀했다.
서호시장의 잔여회도 맛있었다.
그렇다고 시가 쉽게 쓰이지 않는다. (河)

눈 내리는 밤이
오히려 뜨겁다.
우리들 마음도 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愛)

미도 많고, 눈도 많고, 인도 많고,
탄도 많은 한 해,
다가오는 해는 넘치지 않=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리)

복잡한 인들도 많았=는데
원고쓰라, 편집하라...
우리 어쩔런 경, 남, 리
정말 애쓰셨어요. *~** (정)

축다,
따뜻한 남쪽 섬으로 가고 싶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媛)

***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0년 12월 1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 · 정해리 · 조애경 · 하영남
진행 | 서승연
주소 | 서울시 용신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